

# 학술적 신뢰와 읽는 재미 가득

고석규·고영진 지음 《역사 속의 역사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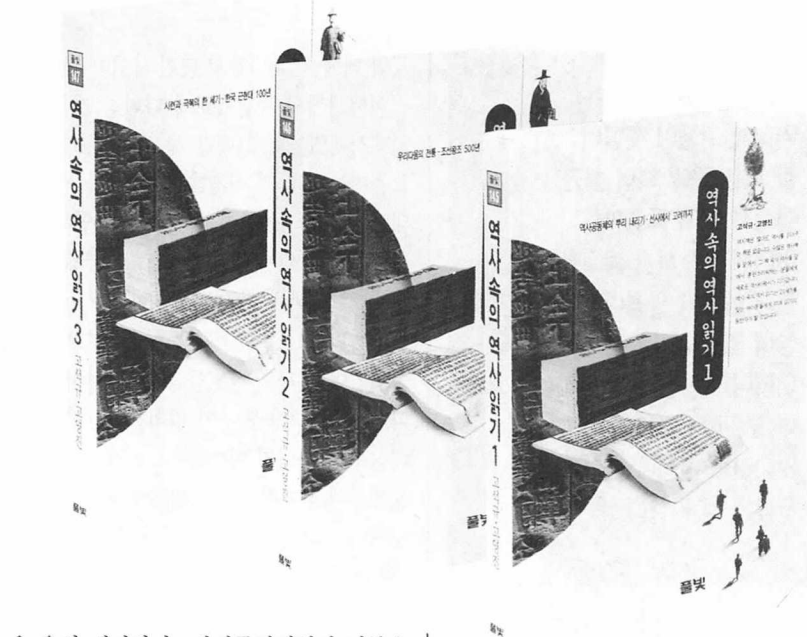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역사는 두 가지 모습이다. 학교 때 죽어라고 외우던 왕조의 연대표 같은 것, 아니면 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야사들. 말하자면 역사는 외우거나 즐기는 것이었다. ‘역사를 읽는다’는 이 책의 접근법은 여러모로 신선하고 놀랍다.

선사부터 현대까지 광범위한 역사를 3권으로 나누어 통사적으로 살피는 것이 이 책의 기본적인 틀이다.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늘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학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온 핵심적인 사안 145개를 주제로 삼았다.

### 역사적 핵심사안 주제로

주제가 되는 역사적 사건을 여러가지 사료와 그동안 역사학계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알기 쉽게 해설한다. 사실에 대한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토대로 역사적 사건을 현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독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말하자면 독자로서 하여금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개별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판단의 종합은 총체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에 다름아닐 것이고, 그 역도 성립된다.

가령, ‘인조반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저자들은 반정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나”라는 역사발전의 기준



을 우선 제시한다. 반정주체세력의 명분은 광해군의 ‘폐모살제(廢母殺弟)’와 후금(後金)에 대한 중립적 외교. 광해군의 실정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한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인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되고 나이 어린 영창대군이 살해되는 대목이 얼마나 슬프게 묘사됐는지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현대의 도덕성이나 가치관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혈족을 살해한 예는 중세정치에서 아주 흔한 것이었고, 후금에 대한 중립적 외교 역시 반정의 발미가 될 만큼 잘못된 외교정책은 아니었다는 것. 반정 후 청에 대한 경직된 외교로 병자호란

이 일어났던 것을 염두에 두면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다. 인조반정이 결국은 지배세력의 교체에 불과한 사건이었으며 일반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책이 내리는 결론이다.

### 옛날 민중들의 삶도 흥미 끌어

역사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만 다루었다면 아무리 쉽게 서술되었다 하더라도 흥미가 덜했을지도 모른다. 고대인들은 무슨 반찬과 양념을 먹었을까, 옛 여인들의 헤어스타일은 어떤 것이었을까같은

사소하지만 정작 우리 민족의 일반적인 삶과 정서를 읽을 수 있는 요소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 책장을 넘기는 속도를 더한다.

단군신화에 대한 해석도 흥미롭다. 곰과 호랑이의 대결에 주어진 조건은 애당초 곰에게 유리한 것이었다는 것. 단군신화는 결국 ‘곰토템’을 가진 종족과 ‘천신족’이라 주장하는 단군무리들과의 결합을 상징하는 내용이라는 해석이다.

고조선의 가요 ‘공후인’과 당시의 암울한 시대상을 견준 해석도 눈길을 끈다. 고구려 고분벽화, 고려불화, 조선 풍속화 등 미술 작품과 문학작품 등 예술작품에 대한 해설도 빼놓지 않았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역사의 긴 흐름을 읽는 한편,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 생활상까지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교육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인 ‘역사의 현장’에서 1년간 방송된 원고를 바탕으로 씌어졌는데, 애당초 일반 대중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서술이 평이하고 내용도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것이다. ‘학술적인 신뢰’와 ‘읽는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는 저자들의 바람이 결코 허황되지 않을 듯하다.

—박남정 기자

풀빛/A5신/각 400면 내외/각 9000원



## POINT-LINE

”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열두명이 모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색다른 눈과  
감각으로 일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12인과 우수편집팀과  
아이디어맨으로 구성된  
포인트·라인  
최고만을 고집합니다.  
”



포인트라인은 픽처북·스토리북·표지일러스트와  
캐릭터·카드·참고서·교과서등 다양한 작업을  
해왔으며, 모든 광고와 표지·본문 디자인 또한 색다른  
시각으로 기획, 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라인의 일러스트 기법으로는 종이 입체  
일러스트나 수채화, 유화, 지점도, 모래  
그림등 기타 기법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라인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유아대상 출판과 아동출판기획을  
저신있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꼭 만족하실 것입니다.